

109. 조선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제5-6-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

성별 남 **나이** 49세 **직종** 강선건조,수리업 **업무관련성** 높음

1. 개요: 근로자 윤OO은 1984년 7월에 입사하여 심출/마킹공으로 작업하던 중 2004년 12월 요추간판 4-5번 고정술을 하였고 3주후부터 목과 어깨 통증이 발현되고 2005년 4월부터 악화하여 동년 9월에 경추 5-6-7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았다.

2. 작업내용 및 환경: 근로자 윤OO은 1984년 7월에 입사하여 심출작업은 14년간 수행하고 있으며, 근로시간은 정상근무시간이 8:00-19:00(10시간)까지 작업을 하였다. 주작업은 블록셋팅, Hammer를 이용한 편칭작업, 마킹작업, 블록의 높이를 조절하는 Pinjig Leveling 작업과 기타 부자재 선별작업으로 구성된다. 블록셋팅 작업이 29.4%, 편칭작업이 10.9%, 마킹작업이 27.2%, Pinjig 작업이 11.9%, 기타 부재선별작업이 20.8%를 점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 주요작업별 목부위의 굽힘/젖힘에 대한 노출비율을 평가한 결과를 살펴보면, 주요작업 중 편칭작업의 60%, 마킹작업의 50.6%, 블록셋팅 작업의 47.2%가 목 부위에 대한 굽힘/젖힘 동작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, 주요작업 전체적으로는 44.4%가 목을 굽히거나 젖힌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. 전체 심출작업의 67.5%에 해당하는 작업들(편칭작업, 마킹작업 및 블록셋팅 작업)에서 약 50%이상의 목 굽힘/젖힘/비틀 동작이 발생하고 있으며, 이러한 작업수행시 목 자세별 RULA의 위험도 또한 2~5점(40~100%)으로 나타났다.

3. 의학적 소견: 근로자 윤OO은 OO조선해양에 1984년 7월에 입사하여 2007년 10월까지 심출/마킹공으로 작업하여 오던 중 2004년 12월 허리 통증으로 동년 12월 27일 요양신청하여 승인받고 요추간판 4-5번 고정술을 하였다. 허리고정술 3주후부터 목과 어깨 통증이 발현되고 2005년 4월부터 악화하여 동년 9월에 MRI 촬영후 경추 5-6-7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았다.

4. 결론: 이상의 조사 결과 근로자 윤OO은,

- ① 2005년 9월 MRI 촬영 결과 경추 5-6-7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았으며,
- ② 근골격계질환 병력상 경추 추간판탈증과 관련있는 특이사항은 없었으며,
- ③ 업무와 관련하여 주작업에 대한 인간공학적 평가에서 20° 이상 굽히거나 젖히는 작업의 비율이 아주 높으며, 작업공간의 특성상 머리를 옆으로 비틀거나 블록에 자주 부딪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,

근로자 윤OO의 제5-6-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강선건조,수리업의 심출, 마킹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.